

쇼트트랙 1차선발 男500m ‘신예’ 신동민 우승

2026 밀라노·코르티나합동 동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5~20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부에서 ‘신예’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남자 1500m에서 고교생 임종연(노원고)이 정상에 오른데 이어 500m에서는 ‘새내기 대학생’ 신동민(고려대)이 우승했다.

신동민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 결승에서 40초67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현(강원도청)이 40초767로 뒤를 이었고, 이정민(성남시청)이 40초946으로 3위에 올랐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성우(화성시청)는 40초976으로 4위에 자리했다.

스타트부터 선두로 치고나선 신동민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갔다. 황대현은 3위로 달리다 한 바퀴를 남기고 추월에 성공해 2위가 됐다.

신동민은 2024년 2월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500m와 1000m, 3000m 계주 금메달을 휩쓸고 3관왕을 차지하며 기대주로 떠올랐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동민은 전

황대현 2위...여자부 김길리 여자 500m 1위

1500m 고교생 임종연 정상...신예 선수 활약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남자 1500m 준결승 1조. 신동민(파, 고려대)이 역주하고 있다.

남 1500m에서 4위였으나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성인 태극마크 꿈을 부풀렸다.

이번 대회 남자부에서는 신예들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며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전날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고교생 임종연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전날 1500m 결승에서 임종연에 밀려 2위에 만족했던 황대현은 또 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다만 1차 선발전 종합 순위에서는

1500m와 500m에서 각각 21점씩을 따낸 황대현이 선두를 달렸다. 신동민도 1500m 8점, 500m 34점을 더해 42점을 기록했지만, 순위를 합한 수치가 황대현보다 많아 2위가 됐다.

임종연은 남자 500m에서는 준준결승 1조에서 5위가 돼 탈락했다.

최근 남자부 에이스로 활약한 박지원은 남자 500m 준준결승에서 2조 4위에 머물러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 남자 1500m 준결승에서 탈락한 박지원은 대표팀 승선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여자 500m 결승에서는 여자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44초268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최지현(전북도청)이 44초357로 2위, 이소연(스포츠포트)이 44초365로 3위다.

김길리는 출발부터 1위를 쫓던 뒤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른 김길리는 전날 1500m 결승에서는 노도희(화성시청)에 밀려 2위에 만족했지만, 이날은 순위표 가장 꼭대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노도희는 여자 500m 준결승에서 서휘민(성남시청)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노도희는 ‘직선 주로 끝에서 안쪽 선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서휘민은 어드밴스드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부상 여파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김길리는 1500m에서 21점, 500m에서 34점을 따 총 55점으로 종합 선두를 달렸다. 노도희가 34점으로 2위다.

1차 선발전은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남녀 1000m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뉴스



무안군청, 전국실업검도 단체전 시즌 2관왕 무안군청 검도팀이 ‘보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실업검도대회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검도회는 무안군청 검도팀이 4월 3일부터 6일까지 경남 거창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 유하늘이 개인전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전남체육회 제공

‘불펜 자책점 꼴찌’ 믿었던 마운드 휘청

KIA 구원진 정해영·곽도규·이준영 등 집단 난조

KIA 타이거즈 구원진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 우승에 기여했던 필승조가 시즌 초반부터 휘청인다.

지난 시즌 완벽한 투타 조화를 보여준 KIA는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마무리 투수 정해영을 비롯해 전상현, 장현식, 곽도규, 이준영 등이 포진된 불펜 마운드는 ‘철벽’으로 불렸다. 정해영은 31세 이브로 생애 첫 구원왕에 올랐고, 전상현과 장현식은 견제함을 뽐냈다. 데뷔 2년 차에 승리조에 합류한 곽도규는 16개의 홀드를 따냈다.

올해도 막강한 불펜을 보유한 KIA는 시즌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된 장현식이 LG와 4년, 총액 52억원 계약하며 이적했지만, KIA는 트레이드를 통해 리그 정상급 불펜 자원인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메웠다.

그러나 시즌 초반 KIA 불펜 마운드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구원 평균자책점은 7.62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출격하는 핵심 불펜 투수들이 동반 부진에 빠져있다.

마무리 정해영은 4경기에 등판해 1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6.75로 고전했다. 지난달 27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3-2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랐으나 1이닝 3실점으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정해영.

블론 세이브를 범했고 패전도 떠안았다.

민들레 전상현의 페이스는 더 나쁘다. 최근 2경기에서 1이닝 2피안타 4볼넷 5실점으로 무너져 전부 패전을 떠안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5.00에 달한다.

아울러 좌완 요원인 곽도규와 이준영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평균자책점 12.00으로 고전한 곽도규는 3이닝 동안 무려 사사구 7개를 허용했다. 이준영은 3% 이닝을 던져 안타 8개를 얻어맞았다.

불펜에 힘을 더하기 위해 구원진에 합류한 황동하마저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00에 그쳤다.

구원진 부진에 김도영, 김선빈 등 내야진 줄부상까지 겹친 KIA는 4승 8패로 9위에 머물러 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1051명 성공 개최 앞장...원활한 운영·참가자 편의 지원

전라남도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전남 각지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 1천51명이 참석해 체전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으뜸전남 자원봉사! 함께남자 감동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체전 기간 ▲종합상황실 ▲개회식 지원 ▲경기운영 지원 ▲홍보 지원 ▲경기장 안내소 지원 ▲대회 안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체전의 원활한 운영과 참가자 편의를 책임지게 된다.

발대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

롯한 전남도의원,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형석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함께 다짐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축전 준비 상황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자원봉사자 결의문 채택, 성공기원 퍼포먼스, 자원봉사 기본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친절교육,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감동체전’ 실현의 주체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행사장에선 체원 부스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김호 기자

나주 ‘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성료

전국 스쿼시 선수들 한자리에 모여 4일간 열전



전라남도 나주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스쿼시경기장에서 ‘제5회 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스쿼시연맹이 주최하고 전남 스쿼시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단식(남녀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

부) 복식(남녀 18세 이하부, 대학부), 단체전(남녀 18세 이하부, 대학부)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는 전 아시아스쿼시연맹 수석부회장인 김원관 전 대한스쿼시연맹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설된 대회로 김원관 회장의 호인 ‘태산’을 대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준중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